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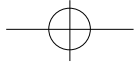
18홀 골프장은 18명의 미녀가

신이 만든 최고의 예술품은 여자로,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최고의 놀이는 섹스다. 그렇다면 인간이 만든 놀이 중 최고는 무엇일까.

골프를 고안해 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혹은 비난받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그것은 골프’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골프 코스가 곧 예술품이요, 골프의 쾌감이 섹스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골프공의 지름은 남성의 페니스가 확대되었을 때의 지름이고 홀컵의 지름은 여성이 흥분하여 질이 넓어졌을 때의 최대치이다. 골프에 대한 집착이 광기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쾌감 때문 아닐까. 반세기 전 골프 황제였던 아놀드 파머가 세운 파머컴퍼니의 골프코스 설계는 ‘골프코스는 여성적인 곡선의 숲이어야 한다.’는 데에 기본을 두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화삼CC가 그들이 선보인 첫 작품인데, 곡선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한다. 풍만한 유방이나 날렵한 허리, 자극적인 히프 같아지지 오래된 산등성이나 누어있는 늪은 짐승이나 무덤처럼 느껴져서는 안된다. 그들의 철학(?)이 잘 담겨 있다.

지금은 남녀를 불문하고, 계절을 불문하고, 날씨를 불문하고, 유아를 침대에 묶어놓고, 종교인은 설교를 소홀히 하고, 재판관은 죄인 신문을 게을리 하고, 대학 교수는 강의도 내팽개치고, 공직자는 시급한 현안조차 뒤로 미루고, 한결 같이 골프장 가는 것만 서두르는 시대가 되었지만, 지구상에 현대적 골프장이 생겨날 때의 인식은, 골프코스는 못 남성을 호리는 여성이요 그리는 여성의 심볼이어서 ‘귀족과 남성의 전유물’이었고, ‘여성출입 금지구역’이었다.

골프(GOLF)라는 명칭 자체가 Gentlemen Only Ladies Forbidden의 머리자를 따서 만들어졌다.(여성의 골프장 출입이 금지된 유래가 또 하나 있다. 중세 영국에서 귀족 남자들은 골프 보다 사냥을 즐겼다. 한번 사냥을 떠나면 일주일 열흘이 보통이었는데, 그럴 때면 왕비나 귀족 여성들은 골프장을 찾았다. 사냥을 떠났던 왕과 귀족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니 하나 같이 빈집이었다. 경호원까지 데리고 골프장에 간 것이었다. 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부인들을 데리버 말을 몰아 골프장으로 갔는데, 가보



저마다 매력 뽐내는 낙원



니 꽃미남 경호원들과 섹스파티를 하고 있었다는 것. 분노한 왕은 현장에 있던 전원을 붙잡아 사형에 처했고, 이후 여성의 골프장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한 홀을 하나의 여성으로 본다면 18홀 골프장은 18명 미녀가 저마다 매력을 뽐내는 낙원이다. 티 그라운드와 미팅, 페어웨이에서의 사랑과 노력을 거쳐 그린에 이르면 여자의 속살을 만지는 것만 같아 가슴이 울렁인다. 잘 다듬어진 골프코스를 돌면서 느끼는 신선한 공기는 들이 마시는 대로 모두 에너지가 된다. 남자는 미칠 수 밖에 없다. 남자의 성감이 시각과 후각으로 자극되기 때문. 여자가 옷을 벗을수록 시선을 받고 화장을 하고 향수를 애용하는 것도 같다. 남자의 원초적 성감을 자극하려는 본능적 행동인 것이다. 그렇다면 청각과 촉각으로 성감이 자극되는 여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골프를 향상할 수 있지 않을까?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여자는 자신을 위한 남자의 노력에 감동한다. 여자는 사랑 받을 때 사랑을 보여준다. 여자는 남자의 감정을 느낌만으로 알 수 있다... 등 등.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도 살펴보자. 여자는 많은 사랑을

받아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남자는 조금만 사랑을 받아도 대수롭게 생각한다. 여자는 사랑해 주는 남자에게 끌린다. 남자는 말 잘 듣는 여자에게 끌린다. 여자는 남자를 착각의 황제로 만든다. 남자는 여자를 불만의 여왕으로 만든다... 등 등. 하나같이 골프에 어느 정도 심취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들 아닐까? 그러나 레즈비언(?)의 세상이 된 지금 GOLF라는 용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여성출입금지'를 내건 코스는 없어졌다. 스코틀랜드나 영국의 일부 오래된 명문, 또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는 미국의 내셔널오거스터GC 등이 자존심으로 지키고 있는 팻말은 '남성전용'이다.



이기운
(한위드스트리 대표)

